

# “태풍피해 보상 현실화”...논 갈아엎는 농심

### 나주시는 4000㎡ 수확 포기 보험료 현실화·수매가격 인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촉구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비 현실화와 정부의 배수매가격 인상·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촉구하며 논을 갈아엎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5일 오전 나주시 공산면 문제문(50)씨의 논에서 트랙터로 문씨의 논 1필지(약 4000㎡)를 갈아엎은 뒤 ‘태풍 피해 배 가격보장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씨는 나주시 공산면에서 2만9752㎡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번 태풍 피해로 총 1만9834㎡의 논이 피해를 입어 수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씨는 “9월 초 빙빙부터 비가 계속 되는 등 연달아 태풍피해를 당했다”면서 “일부를 수확을 했을 경우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 논을 갈아 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씨를 비롯한 전남지역 농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며 성난 농심을 드러냈다.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둔 9월 한달동안 3차례의 태풍으로 전남농가들은 심각한 벼 피해를 입었다”며 “백수·흑수, 도복(쓰러짐), 물에 잠김 등으로 역대급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벼도 8월 이후 등숙기때 햇볕을 보지 못하는 등 좋지 못

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수확량까지 크게 감소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있다”고 하소연했다.

농민들은 또 “2018년부터 시작된 채소 가격 대폭락에 올해 벼 피해까지 겹치면서 전남 농민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며 “특히 정부가 피해 배의 수매를 추진하더라도, 피해곡이 시중에 저가미로 둔갑돼 유통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피해곡의 수매가

격을 1등급의 80% 가격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농작물재해 보험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로 농작물재해 보험사들이 단순 무게중심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피해율을 65%밖에 산정하지 않는 등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손실금액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또 벼 피해와 함께 김장배추 등 다른 농작물의 피해도 심각하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김장 배추의 경우 피해가 90% 이상으로, 피해액만 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50억원 보다 4배나 많은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정병호 기자 jusbh@



15일 오전 나주시 공산면 한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정부 수매 가격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뒤,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경찰 ‘체감 안전도’ 1위 3년 연속...광주는 하위권

전남도민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남경찰청 체감 안전도는 77.8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경찰청은 2017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전국 평균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청의 경우 같은 기간 체감 안전도 70.6점~73.6점으로 조사돼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9~15위를 차지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체감 안전도는 72.9점으로 나타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ADHD 치료제 오남용 심각...광주·전남 5년간 2만명 처방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제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 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건수가 64

만 4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며 20대 등 특정 연령층에서 오남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건수는 2014년 2만8442건에서 2018년 8만1776건으로 급증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1만 4749명, 전

남은 5403명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 자극제 계열의 ADHD 치료약제로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마약류를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전남경로당,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변신

전남지역 경로당이 노인 교통안전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이하 공단)는 “지난 14일 곡성군 7구 경로당에서 제1호 ‘교통안전 플랫폼’ 행사를 개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곡성군 경로당 30곳을 시작으로 경로당 내부에 ‘보행안전 서고요 교육 게시판’을 설치하는 ‘교통안전 플랫폼’ 재구성 사업을 시작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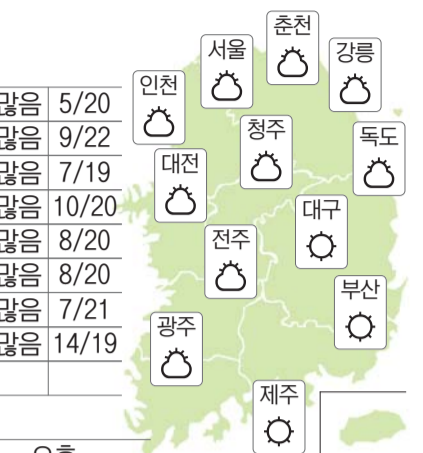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달뜨기 19:34  
해질 17:57 달질 08:30

#### 쌀쌀한 아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9/21	보성	구름 많음	5/20
목포	구름 많음	11/20	순천	구름 많음	9/22
여수	구름 많음	11/19	영광	구름 많음	7/19
나주	구름 많음	6/21	진도	구름 많음	10/20
완도	구름 많음	11/21	전주	구름 많음	8/20
구례	구름 많음	6/21	군산	구름 많음	8/20
강진	구름 많음	8/21	남원	구름 많음	7/21
해남	구름 많음	7/21	축산도	구름 많음	14/19
장성	구름 많음	7/2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3.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1.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높음	자외선
중음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35 20:58
여수	03:57 16:17	10:21 22:26

#### 주간 날씨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	☁	☁	☀	☁	☁	☀
11/21	12/22	12/22	12/22	11/22	11/22	11/21

## 식약처, 빼빼로데이·수능 앞두고 제과 업체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빼빼로데이와 수능을 앞두고 광주·전남 식품제조업체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5일 “11월 빼빼로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자·초콜릿·칩·찰떡 등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제과점, 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중인 선용용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과자 대상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 “아이리버 보조배터리 고온에 오래 노출 시 폭발”

### 소비자원 7개 제품 시험·평가

아이리버 보조배터리(IHPB-10KA) 제품이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폭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리버 측은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보조배터리 7개 제품의 안전성과 수명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리버, 삼성전자(EB-P1100C), 샤오미(PLM16ZM), 알로코리아(allo1200PD), 오난코리아(N9-X10), 즈미(QB810), 코끼리(KP-U10QC5) 등이다. 아이리버 제품은 배터리 안전성 시험

중 130도에서 10분간 견디는 전기용품 안전기준(KC)에 적합했으나, 130도에서 30분간 견디는 한국산업표준(KS)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이 제품은 130도에 12~15분 정도 노출하자 불이 붙고 폭발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 아이리버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 중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표시 용량 대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전 용량은 코끼리 제품이 91%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오난코리아 제품이 69%로 가장 적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절삭유 교체 X    ✂ 미세 칩 제거**  
**✂ 연/절삭유 부패방지    ✂ 슬러지 약취 제거**

###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절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 TEL : (062) 953 - 2995  
▶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29 - 6400 ~ 3